

#1차 공판

시니어 자경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는 날 대형로펌 출신 은퇴변호사 이정구가 그들을 변호하
위해 배심원단과 재판장 앞에서 첫 변호를 냉철함으로 시작한다.

이정구: 저는 경찰이 입수했다는 사건 당일 아파트 입주자 경비원 폭행 사실에 대한 CCTV 녹화
영상본을 '공개요청' 한 적이 있습니다.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작성한 초동 수사 기록 열람을 신청했습니다. 다시 거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앞에 앉아 있는 재판장을 바라보며) 여기 계신 재판장님께서 공개 명령을 요청했
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거부하셨습니다.

저는 검찰청 캐비닛에 있을 수사 기록을 보지 못했습니다.

(유도하 듯 물어본다)혹시 청와대에서 경찰 업무에 관여합니까?

아니죠?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그러면 안되지요?

(어이없다는 듯 가볍게 웃으며) 그런데 재미있는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얼굴이 굳어 의미심장하게 읽어 내려간다) 경비원 폭행 사실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일체
삼가하고 서북부 부녀자 살인사건의 내용을 널리 홍보할 것! 청와대 국민소통 비서관실.

(어이 없다는 듯 물어본다) 이게 뭐니까?

(점점 강하게 물어본다) 경찰이 입주자 경비원 폭행 사건에 대한 자료를 배포한 적은 몇
건이나 됩니까? (강경 한 톤으로) 한 차례 있었습니다.

(더욱 강하게 소리치며 몰아붙인다)

부녀자 살인사건에 대한 보도자료는 같은 시기에 총 열 한차례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한 후)

(냉철하고 절제된 목소리로) 이 재판에서 저희는 그것을 밝히겠습니다. **CUT.**